



선생님!
저 동성애자인 거
같아요!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성소수자 인권지침서 첫 번째
교사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인권이야기

선생님! 저 동성애자인 거 같아요!

성소수자 인권 지침서 첫 번째
교사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인권 이야기

성소수자 인권 지침서 첫 번째
교사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인권 이야기

1. 교사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청소년 성소수자 이야기 6
2. 이것은 기본! 알아두면 좋을 성소수자 관련 용어 풀이 8
3. 선생님,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 1)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말, 말, 말 14
 - 2)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눈으로 세상을 보다! 16
4. 청소년 동성애자들에게 갖게 되는 불편한 물음들 34
5. 상담사례를 통해 본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현실, 만약 당신이라면 28
 6. 열린 상담을 위한 10가지 태도, 이렇게 상담하세요! 43
 7. '모두를 위한 교육' 을 위해 펼칠 수 있는 10가지 행동 49

부록 54

나도 혹시 호모포비아? | 누군가 나에게 커밍아웃을 해 올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 상담이 하고 싶거나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을 얻고 싶다면



동성애자인권연대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동성애자인권연대는 성소수자 차별에 반대하는 게이, 레즈비언,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인터섹슈얼(간성), 무성애자, 성정체성을 고민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성애자들이 함께 모여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1997년 설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가정, 학교, 직장 등에서 직·간접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부당한 인권침해와 혐오, 차별에 맞서 싸우고 있으며 성소수자 자긍심 회복을 위한 활동은 물론 차별적인 법제도 개선 등 사회적 소수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노동권팀, 청소년자긍심팀, HIV/AIDS 인권팀 등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구성된 팀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웹진과 각종 포럼, 토론을 통해 성소수자 인권소식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자긍심팀은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신의 성정체성을 긍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상담을 지원하고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참여하는 인권교육 프로그램 **무지개 학교 놀토반**을 진행하고 있으며 매년 4월이 되면 청소년 동성애자 욕우당의 죽음을 추모하기 위해 **청소년 성소수자, 무지개 봄꽃을 피우다** 거리캠페인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외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삶을 직접 인터뷰하고 있거나 (예비)교사, 청소년상담원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도 청소년 자긍심팀의 중요한 활동 중 하나입니다.

여는시 ■

성적소수자

육우당 作

태초에 인간이란 존재는 쌍으로 붙어있었대. 머리 둘, 팔은 넷, 다리도 넷.

거만한 인간에게 분노한 제우스는 우르르 쾅! 번개를 내리쳐서
쌍으로 붙은 인간을 ‘뚝!’ 하고 떨어뜨려나가 머리 하나, 팔 둘, 다리 둘이 되었지.

그 때부터 우리의 고난은 시작됐어.
서로 떨어지게 된 인간은 남은 반쪽을 찾아 이리저리 남자가 만나게 됐고,
어떤 때는 남자끼리 여자끼리 만나게 됐지. 그게 바로 우리들.

언제나 그늘처럼 존재해 온 우리들.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그들은 우리들을 멸시하고 우리들은 분노하고, 기가 막혀, 기가 막혀.
나머지 반쪽을 찾겠다는데 뭐가 그리 이상해.

우리들은 지극히 정상이야.
너희들과 약간 다를 뿐이지. 정 우리들이 역겹다면 제우스에게 따져.
오랜 세월 박해받아 온 우리들.
이제는 희망을 찾아 무지개를 휘날리며 앞으로 나아간다.

우리는 성적소수자.
제우스의 번개로 내 반쪽 찾아다니는 아름다운 방랑자.

육우당(아호)은 19세 청소년 동성애자입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2개월 남긴 채 학업을 중단해야 했고 아버지와 함께 정신과 병동을 찾아다니며 상담을 받아야 했습니다. 2003년 4월 25일, 그는 사회적 편견과 낙인으로 인한 삶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채 다시 되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났습니다. 유서와 일기장, 자신에게 큰 힘이 되었던 성모마리아상과 십자가, 그리고 자신의 전 재산 30만원 정도의 금액을 동성애자인권연대 사무실에 남겼습니다. 그를 추모하기 위해 매년 4월이 되면 ‘청소년 성소수자, 무지개별꽃을 피우다’ 거리캠페인이 열립니다. 2008년에는 시인을 꿈꿨던 그를 기리고자 작은 추모집 ‘내 혼은 꽃비되어’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살아있다면 이미 성인이 되었을 나이인데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끔찍하게 변해버린 한국 사회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1 교사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청소년 성소수자 이야기

두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청소년이 학교에서 동성애자라고 밝혀졌습니다. 이 친구의 담당교사는 '정신개조'를 한다는 명분으로 '사랑의 학교(장계 받는 곳)'에 데려갔습니다. 성경책 한 권을 다 쓸 때까지 절대반으로 돌아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담당 학생에게 "너는 악마의 유혹에 빠져 버린 거야 성경을 읽고 다 스러악미를 쫓아내고 하나님의 뜻을 보아야 한다."는 폭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선생님 한 분이 상담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반 학생 한 명이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최근에 자신의 성정체성 때문에 가출을 해서 걱정된다고 하셨습니다. 상담을 의뢰한 선생님은 졸업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미 전교생이 모두 알게 되어 학교에 오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동료교사가 반 학생이 걱정되는 마음에 가족에게 말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상담을 의뢰한 교사의 도움으로 가출한 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자 친구라며 함께 데리고 나온 학생과 마주한 채 밥도 먹고 차도 마셨습니다. 상담을 끝낸 뒤 그들은 상담을 함께 해준 선생님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친구처럼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도 말했습니다. 선생님 얼굴에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별 거 해준 것도 없다며 선생님은 머쓱해 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굉장히 불인해 보였던 두 학생은 선생님을 만나면서 조금은 안도한 듯 보였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자신의 성정체성을 드러내는 일은 굉장히 어렵고 때로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신이 쌓아왔던 모든 것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물며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권리에서 제외되고 있는 청소년 동성애자는 어떻겠습니까? 확실한 것은 청소년 동성애자도 다른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며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와 다

르게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성정체성과 관련한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만큼 자신의 성정체성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화책을 보다가 성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시작될 수 있으며, 영화나 TV드라마를 보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동성친구와의 스킨십, 또래 동료들이나 선생님을 좋아하면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익숙하지 않은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자신에게 더 필요한 정보를 직접 찾아보기보다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도덕관과 종교관에 기대 학생들을 대하곤 합니다. 만화책, 영화, 인터넷, TV드라마가 문제라고 말합니다. 성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조심스럽게 털어놓는 청소년에게 성경책을 들이민다면 그 청소년은 더 이상 선생님을 신뢰하지 않을뿐더러 자신에 대한 혐오와 부정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성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청소년기에 겪을 수 있는 일탈쯤으로 여기고 가볍게 차부해 버린다면 상담을 의뢰한 청소년은 선생님에 대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것입니다. (너무 굳게 닫혀 다시 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상담을 의뢰한 청소년이 걱정된다는 마음에 가족에게 이야기해 버린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것조차 모두 파괴되고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글은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위한 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성정체성으로 고민하는 학생에게 도움을 주고 싶거나, 인권과 평등의 가치를 학교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선생님들에게 도움을 주고자하는 글입니다.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주변에 성정체성을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은 없는지, 가족, 또래친구들과의 불편한 관계 때문에 힘들어 하고 있는 학생들은 없는지, 성정체성 때문에 왕따를 당하거나 가출, 자살을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은 없는지.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작은 변화의 씨앗이 싹 틔우길 바랍니다.

2 이것은 기본! 알아두면 좋을 성소수자 관련 용어 풀이

이 자료는 동성애자인권연대 '온라인 자료실', 한국성적소수자문화
인권센터 '성소수자 사진', 청소년 성소수자 커뮤니티 라틴
'모두를 위한 교육' 자료를 활용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성소수자는 어느 한 구역에 모여 살거나, 특정 직업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어느 곳에서나 존재하고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며 연령대도
다양합니다. 가족과 친구들 중에도, 여러분들의 반 학생 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과 함께 성적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지지를 받고 싶어할지 모릅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평등한 관계는 올바른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존중하는 용어 사용은 성소수자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첫 걸음입니다.

1. 성적지향(방향성)과 성 정체성은 무엇일까?



성적 지향이란 특정 성별의 상대에게 성적, 감정적으로 관심을 나타낸다는 뜻입니
다. 성적 지향의 대상을 성별에 따라 분류하면 여성, 남성, 양성, 무성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성애자 여성과 동성애자 남성은 동일한 성적 지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성적지향 자체는 남성과 여성 중 어느 한쪽으로부터 완전히 기울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 상대적으로 어느 쪽을 더 좋아하거나 혹은 양쪽 모
두 좋아할 수도 있는 자연스러운 방향성의 문제로 성적 지향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
합니다.

성 정체성은 이러한 성적 지향을 바탕으로 성적 주체성이 확립된 상태를 말합니다. 성적체성과 관련된 문제는 성소수자의 삶의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성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동성애자인지” “이성애자인지” 궁금하다면 자신이 어떤 성별을 가진 사람에게 감정적, 정서적, 신체적, 성적으로 가장 끌리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2. 생물학적인 성(섹스)과 사회적인 성(젠더)은 어떻게 구별되는 것일까?



sex는 자신의 선택과 무관하게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인 성을 말합니다. 주로 성 염색체로 구분되는데, 남성과 여성을 비롯해 간성(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특징을 함께 가짐) 등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성적체성 구분은 주로 이 생물학적 성을 기준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즉 세상의 인간은 남자와 여자 둘로 구분되어져 있고, 남성과 여성의 결합이야말로 정상이라고 여겨져 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gender**는 사람에게 규정되어진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의미의 성에 대한 용어라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생물학적 성의 구분을 넘어 한 성에 주어진 사회적 의미를 제대로 알고 좀 더 주체적으로 성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트랜스젠더는 자신의 생물학적 성을 부정하거나, 다른 성을 선택한 이들입니다. 그가 생물학적으로는 여전히 남성이라 할지라도 그의 주체적이고 사회에서 받아들여야 할 성은 여성일 수 있고 생물학적으로 여성이라 할지라도 그의 사회적 성은 남성일 수 있습니다.

성별정체성은 바로 자신의 성별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물학적으로는 남성이지만 여성으로 인식하고 있는 트랜스젠더의 경우 그녀의 성별 정체성은 여성인 것입니다. 그녀는 남성 또는 여성, 아니면 둘 다에게 성적, 감정적인 관심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3. 동성연애 No! 동성애 Yes!



일반적으로 자주 쓰는 “동성연애(same-sex acts)”라는 말은 자연스러운 애정관계를 완전히 배제한 채 단지 동성 간의 육체적 결합만을 의미합니다. 즉 동성연애라는 용어에는 동성 간에는 이성애 같은 총체적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한 애정이 성립될 수 없다는 전제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성애를 선택적인 경험으로 이해하다 보니 본인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도덕적인 일탈행위로 치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동성애는 doing(행위)이 아닌 being(존재)입니다. 행위는 존재를 수반해야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동성애’를 성적인 행동만 있다면 인정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이성애를 성적인 행동만 있다면 인정하겠다는 억지 주장과 동일합니다. 오히려 동성애자들이 이성애와 성경험을 갖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것이겠죠!

4. 성소수자를 부르는 여러 이름들



호모 (Homo, Homosexuality의 줄임말)라는 용어는 원래 19세기말 헝가리의 한 의사가 그 이전의 동성애를 종교적 또는 도덕적으로 모멸하는 표현(소도미, 남색

등을 대신하여 의학적으로 고안해 낸 것입니다. 당시 정신병의 일종이라는 병리학 적 인식 속에서 만들어진 용어였지만, 산업화 이후 동성애자 탄압이 시작되면서 동 성애자를 모멸하는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레즈비언(Lesbian)은 여성 동성애자를 지칭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여자 시 인 사포가 그의 여 제자들과 살았던 레스보스 섬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게이(Gay)라는 용어는 ‘호모’라고 불리기를 거부하는 동성애자들이 어두운 이미 지를 대체하는 밝은 이미지의 ‘기쁨’이라는 의미를 사용하기 시작하며 등장했습 니다. 원래는 남녀 동성애자 모두를 지칭했으나, 지금은 주로 남성 동성애자를 말 합니다.

바이섹슈얼(Bisexual)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성적 지향을 지닌 양성애자를 뜻합 니다.

트랜스젠더(Transgender)는 자신의 생물학적 성과 다른 성을 지닌 이들을 총칭합 니다. 성전환술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성을 지향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므로 외모 나 복장만으로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당사자의 판단과 선택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 요합니다.

인터섹슈얼(Intersexual)은 말 그대로 ‘간성’ 혹은 ‘중성’이라는 뜻입니다. 남성의 성기와 여성의 성기를 동시에 가지고 있거나 두 가지 성기 중에 한 가지가 불안전하 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태어나자마자 간성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하면 의사와 보호 자가 상의하여 하나의 성으로 결정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아기의 성적 지향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적절한 성을 찾아주

있는가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여성의 성기가 남았는데 여성을 좋아할 수도 있고 둘 다남아 있을 경우 자아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큰 혼란을 주기도 합니다.

퀘스체너리 (Questionary)는 정체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에 있거나 본인의 의지에 따라야 하는 정체체성에 대한 규정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드랙퀸이나 **드랙킹**은 남녀 동성애자들이 이성 복장을 입고 일종의 유희(축제, 퍼포먼스, 쇼 등)를 벌일 때 자주 쓰는 용어입니다. 다만 이성복장 착용자(크로스 드레서나 트랜스베스티이트)의 경우 이성복장을 통해 정서적 만족감이나 성적 흥분을 얻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크로스 드레서나 트랜스 베스티이트는 이성애자들인 경우도 많으며,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와 동일하게 바라 볼 이유는 없습니다.

여기에 소개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정말 다양한 성소수자들이 존재합니다. 나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성소수자들을 비정상, 변태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기 보다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5. 커밍아웃? 아웃팅?



커밍아웃 (coming out of the closet - 벽장으로부터 나오기)라는 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성소수자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긍정하고 외부에 자신의 성정체성을 밝히는 모든 과정을 말합니다. 성소수자들이 차별받고 억압받는 현 시대에서는 자아를 형성하고 표출하는 하나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결코 간단치 않은 일이므로 많은 준비가 필요하며 때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커밍아웃은 자

신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지지해줄 때
비로소 더 많은 성소수자들이 커밍아웃을 시도할 것입니다.

아웃팅 (Outing)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성소수자의 정체성이 타인에 의해 알려지는 일을 말합니다. '강제적인 커밍아웃'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미국의 성소수자 인권운동에서 커밍아웃하지 않는 유명 정치인, 연예인, 경제인들의 성정체성을 언론 등에 공개해버리는 운동에서 출발했습니다. 자발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은 커밍아웃할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때로 상대의 성정체성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악용해 협박과 범죄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본인의 동의가 없는 아웃팅은 하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3 선생님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말 말 말.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Raben(라벤)'과 동성애자인권연대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했던 선생님들에게 하고 싶은 청소년들의 말. 말. 말을 담아보았습니다.

학생들에게 성소수자 비하 발언이라든지 성소수자들에 대한 혐오감이 섞인 발언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끔 수업 중에 아무생각 없이 동성애자는 역겹다고 말하시는 선생님들이 꽤나 있어요. 수업 듣는 모든 아이들이 이성애자라고 생각하고 그러시는지. 인종차별, 성차별, 왕따, 모두 나쁜 것이라고 교육하면서도 성소수자에 대해서는 생각 없이 말씀하시나요?

성소수자에 대한 농담 하나하나가 큰 상처가 됩니다.

성소수자들도 학생이고, 하나의 인격체예요.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있는 그대로 봐주면 좋겠어요. 보수적일 거라고 생각하는 교사에게 커밍아웃하는 건 그만큼 더 많이 선생님을 믿고 있는 것이니, 혹여 그럴 리 없겠지만, 선도할 불량학생으로 대하거나 성향이 바뀔 거라는 생각으로 상처주지 않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정상의 길을 강요하지 말아주세요. 우리는 물론 다른 아이들과 조금 다르지만, 꼭 남들과 같아야 할 필요가 있나요? 내 얼굴과 똑 같은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비슷한 사람은 있을 수 있겠지만 나와 똑같은 사람은 없겠죠. 사람이란 건 원래 그 하나하나가 다 다른 존재들이잖아요. 목사님 소개 안시켜주셔도 돼요.

수학 수업시간이었던 거 같아요. 저는 그때 제 짝꿍과 같이 졸고 있었죠. 5교시라 다 졸고 자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수업 분위기를 바꾸려고 하셨는지 딱 저와 제 친구를 깨워서 일으키더니 저희 둘을 뽀뽀하라고 시켰습니다. 당연히 저희 반 친구들은 마구 웃으며 둘이 게이라고 게이끼리 뽀뽀한다고 저희를 마구 놀려댔습니다. 그 수업시간이 끝난 후에도 저희를 보며 게이라고 놀렸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게이임에도 불구하고 아웃팅(Outing :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신의 성정체성이 타인에게 밝혀지는 것)의 공포에 사로잡혀 아니라고 절대 아니라고 하며 제 자신을 부정하는 말을 마구 마구 내뱉어버렸습니다. 당연히 저는 제 마음에 상처를 입었죠. 물론 그때 수업 분위기를 바꾸려고 했던 선생님의 의도는 알고 있었지만 왜 꼭 그런 식으로 게이가 희화화되는 식으로 분위기를 유도하셨을까요. 그냥 유머를 던지셨으면 되었을 것을. 선생님들이런 거 하지 말아 달라구요!

저희 학교에서 어떤 선생님께서 왜 동성애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발언하신 거. 선생님들께서 그런 편견을 가지고 계시면 안 되잖아요. 솔직히 선생님께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건 아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께서 수업시간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눈으로 세상을 보다!

서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꾸밈없는 이야기들.



당신이 생각하는 **평범한 (게이) 고등학생**의 하루

은찬, 동성애자인권연대 청소년자금신팀



지금은 이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것 같은 눈꺼풀을 뜨고, 듣기 싫은 아침 모닝콜 소리가 나는 곳을 손으로 뒤지고 나서 알람을 끈 뒤 기자개를 펴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고등학생 게이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게이입니다. 저는…… 게이입니다.

눈이 떠지고 일어나면, 평범한 학생과 다를 것 없이 화장실로 가서 학교 갈 준비를 합니다. 젖은 머리를 말리고, 밥을 차립니다. 밥을 다 먹고, 약을 먹습니다. 저는 환자입니다. 그냥 조금 평범한 환자입니다. 단지 아침에 꼬박꼬박 약을 먹어야 해요. 잊어 먹을까봐 늘, 아침에 체크를 하죠. 약은 내 친구입니다. 평생을 함께 해야 하니까요. 어차피 평생 먹을 거면, 익숙해지는 게 나으니까요. 어둠이 내린 집안에 깨어있는 건 저 밖에 없습니다. 회사원보다 공무원보다, 아침을 일찍 시작합니다. 모 두가 아직 잠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시간에 아침을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2년 동안 지겹게 입었고, 또 앞으로 1년을 더 입어야 할 옷으로 갈아입고, 밖으로 향합니다.

저는 아침을 1시간 더 일찍 시작합니다. 학교는 버스를 타고도 1시간 이상 걸리는 먼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먼 거리를 통학하는 게 힘들었지만, 이제는 적응되어서 많이 편찮아졌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도 전에, 밖을 나서면 아득운 밤 같습니다. 새하얀 입김을 불며, 버스정류장에 서서 파란 버스를 기다립니다. 차가운 공기가 몸을 감싸고, 하늘을 쳐다보면 많은 생각이 듭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다짐, 회상, 잡생각 등등. 그러다보면 익숙한 파란 버스가 도착해 나를 싣고 출발합니다. 버스를 타면, 아직은 너무 이른 시간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며, 귀에는 익숙한 음악소리가 들려오는 이어폰을 꽂고 또 생각에 빠집니다. 아제, 오늘 그리고 내일에 대한 생각을 하며 천천히 버스를 타고 가다보면 많은 여학생들이 버스를 탑니다. 아마 이 버스의 종점은 어떤 여학교인 것 같습니다. 종점에 다다를 때쯤에는 늘 여학생들로 가득 찬 버스가 되어 버리나간요. 가끔은 이 버스의 종점이 남학교면 어떨까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다면, 저의 학교 가는 길이 조금은 즐거웠을까요? 그 버스가 여학교인 종점에 다다르기 전에 저는 버스를 갈아타기 위해 중간에 내립니다. 내릴 때쯤에는 하늘이 아까보단 밝아졌습니다. 이제 슬슬 해가 뜨는 모양입니다. 다시 익숙한 버스를 기다리고 그 익숙한 버스를 타고 학교를 향해 갑니다.

버스에서 내려, 학교로 걸어가면서 옷매무새를 단정히 합니다. 벅타이드 제대로 매고, 와이셔츠도 조끼 안으로 바짝 집어넣고, 아침 등교시간은 선생님과 학생들의 전쟁입니다. 조금이라도 안 흔나려고 몰래 들어가려는 학생들, 꼬투리를 잡고 흔내려는 선생님들. 그렇게 교실로 들어가면 반가운 얼굴들이 보이고 그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그리고 내 이름이 조그맣게 적힌 자리에 앉아서 수업준비를 합니다. 조희시간에는 담임선생님의 잔소리 같은 말들이 한껏 지나가고, 종소리가 들린 후 수업을 시작합니다. 수업을 하면 모두가 기계 같습니다. 하얀 종이위에 검은 글씨와 알록달록 색색의 볼펜으로 필기된 글씨들. 그것들만 바라보고, 그것들만 머릿속에 집어넣으

려는 기계들. 선생님의 말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고, 뻑뻑이 적어나가는 공책은 이미 너털너털해진지 오래입니다. 그러다가, 잠에 덜 깨서 졸고 있는 학생을 보면 선생님은 또 깨우고, 선생님 몰래 떠들다가 들킨 학생들은 또 혼나고, 수업은 이렇게 계속 반복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수업. 기계들, 학생들.

1교시가 지나고, 2교시, 3교시, 4교시가 차례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수업들이 한차례씩 지나가면 점심시간입니다. 그나마 학생들이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시간. 하루에 한 끼, 2,600원이라는 급식비를 내고 밥을 먹지만 먹을 때마다 드는 생각은 2,600원짜리 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불만을 툭툭 뱉어내지만 그래도 먹습니다.

복적거리던 점심시간이 지나가면, 또 한 차례의 수업들이 대기 중입니다. 잠의 유혹을 버티기 힘든 5교시는 꾸벅꾸벅 졸면서 듣는 듯 마는 듯 그렇게 획 하고 지나가버리죠. 그렇게 6교시, 7교시, 8교시가 지나간 후에 야간자율학습(야자)을 시작합니다. 환자라는 이유로 야자를 뺀 저는 책가방을 들고, 친구들의 부러운 시선을 받고 교실을 나섭니다.

담임선생님은 처음에 야자를 빼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정신력으로 버티라'라는 둥으로 고3이 무슨 야자를 빼냐고 설득하셨죠. 야자요? 네, 물론 할 수 있어요. 못할 정도로 몸이 아픈 것도 아니니깐요, 저는 걸으로는 환자도 아니니깐요. 그렇지만, 하기 싫은 건 어쩔 수 없습니다. 10시까지 저 잔질머리 나는 학교에 남는다면 제 머리는 이미 미쳐 버릴 것 같았거든요. 결국 몇 번의 설득 끝에 담임선생님을 이기고, 정규수업만 마치고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익숙한 과란 버스를 타고 학교에서 조금씩 멀어져가요.

어떻게 보면, 평범한 고등학생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일상입니다. 어쩌면 조금은 특별할 수도 있죠. 학교가 끝난 뒤, 집에 가서 쉬거나 혹은 미리 약속을 잡아놓은 스케줄을 위해 밖으로 나갑니다.

집에 오면 어느새 6시가 넘어갑니다. 그렇지만 저의 하루는 이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친구들의 연락을 받고, 종로를 갈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억눌려왔던 이야기를 친구들과 함께 할 수도 있겠죠. 교복을 던져버리고 깔끔하게 갈아입은 옷으로 나가면, 반가운 얼굴들이 보입니다.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다보면 솔직해지고 학교에서 말 못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죠.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힘들 때 함께 고민해주고, 같이 웃어주는 저에겐 새로운 식구 같은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회의도 하고, 앞일에 대해 이야기도 해봅니다. 때로는 혼자 길거리를 걸으면서 돌아다닐 때도 있습니다. 조그마한 카페에 들어가서 좋아하는 커피를 마시며 글도 쓰고 생각을 정리할 수도 있죠.

그리고 하루가 다 지나가서, 집에 와서 잠을 청하고 아침이 오면 똑같은 생활이 반복되죠. 정말 평범하기 그지없는 하루하루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저는 약을 먹는 환자이고 버스에 탄 여학생에 흥미를 느끼지 않는 고등학생 게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고등학생' 게이의 하루는 어떤가요? 꼭 저 같은 하루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체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벽장 속 게이라면 아직 사람 만나는 것이 혼란스러워 밖으로 나오는 것을 꺼릴 수 있죠. 어쩌면 학교를 안 나가고 종로바닥에서 사람들만 만나며 돌아다닐 수도 있어요.

저는 또 환자입니다. 누군가가 10시간을 일하고 50%의 피곤함을 느낀다면, 저는 똑같이 10시간을 일하고 70%, 80% 또는 100%의 피곤함을 더 빨리 느끼는 환자입니다. 처음에는 하루를 간단히 스케치하는 글을 쓰려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살아가는 동안 그냥 길거리에 지나가는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그렇지만 그 고등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죠. 쓰다 보니 전해지는 내용이 없는 글이 되어 버렸네요. 꼭 모든 청소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건 아니겠죠. 그냥 저는 대한민국의 한게이 고등학생의 일상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고등학생 게이는 어떤 모습인가요?

청소년 성소수자, 인권침해를 말하다 - 학교에서의 아웃팅

광호, 동성애자인권연대 청소년회원



동성애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그것이 아웃팅이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청소년 성소수자들도 피해갈 수 없었는데, 청소년의 경우 성인 동성애자들보다 정신적 피해를 입기 쉽다고 생각한다.

나 역시 이번 6월에 학교에서 아웃팅을 경험했다.

올해 1월 1일, 큰마음을 먹고 일반인들과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자 서로 아웃에게만 공개했던 블로그를 전체 공개로 돌려놓았다. 동성애자를 다룬 글들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도 있었고, 동성애자인권연대 활동에 대해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다. 2009년의 결심이 꽤나 긍정적인 결과를 내고 있음에 흐뭇한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와 모두 소통하는 것은 역시 무리였던 것일까? 나는 학교에서 세 가지 불이익을 당해야 했다.

사건은 6월 8일, 학교 컴퓨터로 내 블로그에 방문하는 것을 같은 반 장난기 많은 학생들에게 들킨 것으로 시작되었다. 친한 친구들이야 내가 커밍아웃을 했고, 이미 블로그 포스팅을 하는 것을 몇 번 보았기 때문에 내 블로그를 보고도 별 반응이 없었지만, 일부 학생들은 부담스러울 정도로 지나친 관심을 표현했다. 순간 당황하여 얼른 다른 사이트에 접속을 했지만, 학생들은 포스팅 제목에서 '게이시대' (1년에 한 번 열리는 퀴어 퍼레이드를 위해 구성된 프로젝트 댄스팀)라는 단어를 포착한 상태였다. 학생들은 곧바로 '게이시대' 검색어를 통해 나의 블로그를 방문하게 되었다.

그리고 다음날, 생일을 맞이했던 같은 반 친구의 부탁으로 한 달간 연습해왔던 소녀 시대 Gee를 추게 되었는데, 이미 전날의 '게이시대' 검색어는 전교생에 퍼져 많은 학생들이 내 블로그를 본 상태였고, 춤을 추는 것을 보기 위하여 많은 학생들이 창문에 다닥다닥 붙어있었다. 문제는 춤을 추다가 발생했다. 다른 반의 모르는 학생이 다가와 더럽다며 침을 뱉은 것이었다. 정확히 뺨에 명중. 무지 화가 났었지만 생일인 친구를 포함해 모두들 즐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두지 않고 끝까지 이어나갔다. 이것이 내가 겪은 첫 번째 불이익이었다.

두 번째 불이익. 그 날 이후 쉬는 시간마다 생판 모르는 학생들이 내 주위로 몰려들었다. 춤을 한 번 더 춰달라는 부탁이라든가, 각종 질문공세에 시달렸다. 춤을 춰달라는 것은 쉽게 거절할 수 있었고, 그다지 불편하지 않았다. 다만 질문이 심상치 않았다.

“그거 해봤어?”

“내가 여자역할이야?”

“어떻게 해?”

“하면 X 묻지 않아?”

하나같이 전부 섹스에 대한 이야기들뿐이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형식적인 대답만 하고는 피곤하다고 엎드려버렸다. 질문으로 끝났다면 다행이었다.

아이들은 내가 신체적 접촉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알고는 가슴을 만져냈고, 발끈하는 나의 반응을 즐겼다. 또한 체육시간 전후에는 괜히 내 앞에서 하의를 갈아입었고, 심지어는 답다는 핑계를 대며 속옷까지 벗기도 했다. 굉장히 당황스러웠다.

세 번째 불이익. 나는 인터넷상에서의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하였다. 아웃팅이란 높은 기세가 금방 꺾이지 않았고, 결국엔 담임선생님까지 내가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문제는 이제 개인의 범위가 아니라 학교 전체의 범위까지로 확대된 것이었다. 게다가 나의 블로그는 어느 샌가 같은 학교 학생들의 악성 댓글로 더럽혀지고 있었다. 담임선생님과의 면담 끝에 당분간 블로그를 비공개로 해 두기로 했으나 억울한 마음에 전체공개 글을 하나 써냈다. 결과는 악성 댓글의 도배. 논리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비난성의 댓글들을 보면서, '꼭 자신의 무지함을 이렇게 드러내놓아야 할까?' 하며 한쪽 입술을 올렸다.

나는 이런 일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편이다. 남들과 비교했을 때 도를 넘는다 싶을 정도로 낙천적인 성격이며,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 쉽게 상처받지 않고, 기분이 나쁘더라도 금방 풀린다.

문제는 대부분의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나 같지는 않다는 점이다. 많은 청소년 성소수자 친구들이 아웃팅 문제로 우울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친구에게 강간을 당한다든지, 자살기도를 한다든지 하는 심각한 상황에까지 이르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엄연한 인권 침해이며, 대강 넘어가서는 안 될 일이다.

더 이상 대한민국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아웃팅으로 인한 고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

관찰아그한 마디의 힘

사랑, 청소년 성소수자커뮤니티 Pateer(리틴) 회원



나는 내 소개를 할 때마다 참 할 말이 많다. 올해 스물, 화귀난치병을 앓고 있는 1급 시각장애인이다. 동생은 뇌성마비로 간질을 앓고 있는 뇌병변 시각 1급 장애인이고, 부모님은 두 분 다 화귀난치병으로 투병 중이셔서 시력과 건강이 좋지 않으시다. 이렇게 얘기한후, 혹은 내 이런 전후 사정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나는 SM(가학, 피가학) 성향을 가진 부치(Butch, 주도적 성향의 레즈비언)이다.” 라고 커밍아웃을 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한때 나는 그게 무척 궁금했었는데, 대개는 내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장애인인) 네가?”

“넌... 장애인이잖아?”

그래, 맞다. 난 집안사정도 안 좋고, 눈도 잘 안 보이고, 몸도 여기저기 아프고, 다리 도踵 절고, 기끔 귀도 잘 안 들려서 통화할 때 상대방 애도踵 먹이고...

그런데, 그게 뭐 어때서?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난 어려서부터 많이 아팠다. 하지만 동생이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었고, 어머니도 내가 어렸을 적부터(특히 내가 많이 아팠을 때부터) 입원과 수술을 하셔야 할 정도로 많이 편찮으셨다. 그래서 난 그나마 꽤 자립적으로, 그나마 꽤 자유분방하게 컸지

않았나 싶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나는 그 자유들을 살 것 다 누리지 못했다. 원래 허약한 줄로만 알다가, 다섯 살 때 그것이 병임을 알게 된 이후로 10여년을 약과 싸웠다. 내가 내 가정환경이나 장애상태 등을 밝힌 후 내 성장체성에 대해 커밍아웃을 했을 때, 정말 내게 크나큰 상처를 주는 말을 한 사람들도 있었다.

“내가 아직 어려서, (장애인이니까) 제대로 된 남자를 못 만나봐서 그래.”

개중에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내가 그렇게 사는 건(눈이 멀고 집이 불행한 건), 내가 더러운 욕망에 물들어 타락했기 때문이야!”

그들은 알까? 내가 그 말 한 마디 때문에 얼마나 먼 길을 많이 되돌아와야 했는지...

중학교 때 어렵게 완치가 되었지만, 합병증과 약부작용으로 인한 시력 악화와 성장 지연, 근력 약화, 구토 같은 것들은 쉽사리 좋아지지 않았다. 완치라는 이야기를 들은 지 6개월 남짓이나 되었을까. 시력이 급격히 악화되고, 코피가 끊임없이 쏟아지고, 정수리와 이마의 머리칼이 한 줌 두 줌씩 빠져나가고, 하루에도 몇 번씩 어지럽고 힘이 빠져 아무 데서나 풀썩풀썩 쓰러지고, 병원을 찾았지만, 탈모 증상과 골수에 저장된 철분까지 모조리 바닥난 심각한 상태의 빈혈이라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알아내지 못했다. 주치의 선생님은 아주 조심스럽게, 학교생활로 인한 스트레스나 정신적 문제의 가능성을 얘기하셨다.

그 무렵, 나는 같은 반 여학생을 정말 깊이 좋아했고, 사랑했다. 끊임없이 지문하고 괴로워했다.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이 사랑이 맞는지, 이게 도덕적으로 올바른 일인

지. 건강이 악화되고 정신적 문제의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었을 때.. 난 내가 다른 사람들과 너무도 다르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며 끊임없이 괴로워했고, 결국은 이곳저곳의 상담소와 정신과들을 찾아다녔다. '정신이 타락해 하나님ی 벌을 주셨고, 그래서 에이즈에 걸려 눈이 멀었다'고 했다. 나는 정말 절실했기 때문에 믿을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정말 시키는 대로 다 했다. 남성의 손길로 올바른 성욕을 일깨운다는 치료를 하기도 했고, 악귀를 쫓는다며 집단 구타를 당하기도 했고, 한번은 타락한 영혼을 씻어낸다고 하루 동안 아무도 없는 창고에 가두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은 채로 온 몸을 결박해 정신을 잃을 때까지 몇 번이고 물속에 강제로 입수시키는 정화의식이라는 것을 하기도 했다.

그렇게 나는 화귀난치병이라는 진단을 받기 전까지, 무던히도 기도원과 사이비들을 찾아다니며 돈을 갓다 바쳤다. 나는 그 일들로 인해 기억상실을 겪었고, 여전히 기억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아 많이 힘들다. 기억이 돌아오면서 겪는 그 선명한 환영들, 나를 괴롭히는 목소리들. 나는 그 때 그 곳으로 돌아가서 또다시 그 일들을 다 겪어내야 했다. 만약 그 때, 단 한 사람만이라도 내게 '괜찮다'라고 말해줬더라면, 아 니, 그냥 아무 말없이 내 어깨를 토닥여주기라도 했더라면...

나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편견에서 벗어나 자신을 당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선입견을 버리고 가족과 친구들을 감싸 안아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많은 친구들이 성적체성과 인권의 내용이 포함된 올바른 성교육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또 모든 선생님과 상담사와 정신과 의사들이 내담자의 고민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했으면 좋겠다.

나는 이 글을 쓰면서 많이 아팠고 또 많이 힘들었다. 더 이상은... 더 이상은 나와 같은 이들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괜찮다. 그 단 한마디의 힘을 나는 믿고 싶다.

준석이 **하고 싶었던** 말들.

준석, 동성애자인권연대 청소년회원



안녕? 이 글을 읽는 모든 여러분. 나는 윤준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청소년 동성애자야. 지금부터는 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

내가 동성애자라는 것을 자각하게 된 건 중학교 3학년 때였어. 지금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3학년 때도, 중학교 1학년 때도 우리 반의 귀여운 남자아이를 짝사랑하기는 했지만, ‘아, 내가 정말로 남자를 사랑하는 동성애자’라는 정체체성을 확립하게 되었던 건 중 3때라고 생각해. 사실 나는 주위의 많은 동성애자들처럼 ‘내가 동성애자 구나’ 이러면 안 되는데...’라는 고민은 해보지 않았어. 어쩌면 밝고 쾌활한 내 성격 때문일 수도 있지만, 나는 내 정체체성에 긍정적이었고 나와 같은 사람이 많을 거라는 생각에 오히려 들떠 있었는 걸.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것과 세상은 많이 달랐어. 아니, 이에 전혀 다른 세상이었어. 내 주위의 친구들은 내가 “게이를 어떻게 생각해?”라는 질문에 하나같이 모두 “더러워”, “정신병자 아니야?”라는 등의 발언을 했어. 그리고 나한테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말은 “너 기독교 믿는다고 그러지 않았어? 동성애는 죄악이라고 하잖아.”라는 말이었어. 나는 그 당시 신실한 기독교인이었고 심지어 내 정체체성을 자각하기 한 달 전에는 교회에서 장학금도 받았는 걸. 그런 나에게 그 친구의 한마디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어. 그 이후로 내가 유치원에 다니던 시절부터 함께했던 교회도 몇몇하게 다니지 못하게 되었어. 교회에서 친하게 지냈던 형, 누나, 그리고 전도사님의 눈을 바라 볼 수가 없었어. 게다가 내가 그렇게 불안정한 상태일 때 옆친 데 달친 격으로 집에서 일이 터져버렸지 뭐야. 바로 내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가족들

이 알게 된 거야. 거기다가 그 당시 나는 처음으로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남자친구의 학교와 핸드폰 번호, 그리고 이름까지 알아 낸 뒤에 엄마가 나한테 물었어.

“너... 솔직히 말해. 네 애인이라고 있는 거 남자 맞아...?”

그 말이 얼마나 나에게 청천벽력 같았는지 몰라. 아직도 가장 무서웠고 힘들 때를 말해보라면 나는 그 때 당시의 상황을 말해주고 싶어. 그렇게, 나는 우리 집안에서 부모님에게 패륜을 저지른 패륜아가 되어버렸고, 그 이후로 모든 사생활이 가족에게 감시당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어떻게든 부모님의 감시를 잠시라도 떠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교회에서 떠나는 수련회였어. 물론 그 수단이 교회라는 게 마음이 걸려왔지만, 그때 당시의 나는 우리 가족들만 아니라면 어디로든지 도망가고 싶었거든. 그렇게 마음 편히 교회 수련회에 가서 쉬고 있다가, 약간의 죄책감(이 죄책감은 내가 동성애자라서가 아니라 그 수단을 교회 수련회로 선택했기 때문이야)과 나에게 너무 잘 해주시는 전도사님이 고맙고, 좋아서 전도사님을 껴안았어. 너무 감사하다는 의미에서. 그런데 전도사님이 내 팔을 뿌리치면서 화를 냈어.

“준석아, 남자는 남자를 좋아하면 안 되는거야, 그거 죄악이다!”

나는 충격이었어. 내가 수련회를 떠나는 그 날 어머니는 전도사님과 통화해서 우리 준석이가 이상해졌다는니, 남자를 좋아한다는니 그런 말을 해버렸던 거야. 그제, 바로 타인에 의해 자신이 원하지 않게 성적체성이 노출됨을 뜻하는 ‘아웃팅’이라는 거지. 그 이후로 나는 교회에 나가지 못하고 있어. 사실은 그 이후로 딱한 번 교회에 나간 적이 있긴 있는데, 전도사님이 나한테 평소보다 더 잘해주려는 태도가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그리고 그 태도가 위선적으로 느껴져서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고

있어. 물론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건 아니야. 난 아직도 예수님이 계시다고 믿고 있는 걸. 내가 그저 불편하고 싫은 건 바로 동성애가 죄악이라고 말하면서 고쳐야 된다는니, 사탄이 행하는 일이라느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야.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뜻 없이는 태어나지 않는다고 하잖아. 분명 우리도 태어났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태어났고,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 우리는 아직 사회에서 소수자야. 그리고 수많은 편견과 멸시속에서 눈치 보면서 살아가고 있어. 여러 해 동안 함께 알콩달콩 살았던 내 남자친구가 병에 걸려서 병원에 가도 나는 보호자로서의 자격이 없어. 그저 일 년에 한두 번 만나는 불편한 가족들이 간단하게 싸인 하면 되는 일을, 나는 몇 년 동안 함께 있어도 할 수 없는 거야. 참웃기는 일이야? 이런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청소년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지도 몰라. ‘학생의 본분인 공부는 안하고 무슨 활동을 하겠다는 건지...’ 하고, 나도 학생이기 이전에 인간이야. 그런 생각도 자신의 기본적인 인권이 지켜졌을 때 할 수 있는 생각이지,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가 존중받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학생의 본분을 강요하며 우리를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

나는 매일 아침을 핸드폰 알람으로 시작해. 졸린 눈을 비비며 “아~학교 가기 싫다!”를 외치며 화장실로 들어서서, 부스스한 내 모습을 거울로 비춰보지. 그리고 이를 닦고, 머리를 감고 매일 그렇듯 바쁜 출근길에 치이며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가. 학교에선 “강간범”, “더러운 새끼”라는 놀림을 받지만 곳곳이 학교생활을 버텨내고 있어. 그리고 지긋지긋한 학교가 끝나면 집으로 가서 재빠르게 옷을 갈아입고 공부를 하러 가기도 하고 종로에 친구를 만나러 가기도 하고 애인과 데이트를 하기도 해. 그리고 나가활동하고 있는 단체의 사무실로 가기도 하지.

우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처럼 문란하거나 이상하지 않아. 오히려 조용하고, 차분하고, 착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특이한 사람들이 아니야. 그저, 사랑하는 대상이 동성일 뿐 늘 우리 곁에서 살아가는 아주 평범한 사람인걸. 바로 우리들을 이해해주고 받아들이라는 뜻이 아니야. 조금은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를 이해해보도록 노력해 달라는 소리야. 끝으로 이것 하나는 명심해 줬으면 좋겠어.

우리가 늘 당신 곁에 존재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린 관찰합니다

진기, 청소년 성소수자 커뮤니티 Rateen 운영자



육우당 (2003년 19세 나이에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의해 타살된 청소년 동성애자)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접한 것은, 4~5년 쯤 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눈이 동그란 여자아이와 '사귀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아이는 저와 '친구로' 만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일을 겪고 나서야 제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동성애자에 대해 쏟아지는 차별에 대해 깨닫고,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내 자신의 고민이었습니다. 주위에 알고 있는 성소수자도 없었고, 인터넷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도 많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또래 친구를 만나기에는 더더욱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고민을 나눌 수 있을만한 만남을 갖게 될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또 한 사람의 육우당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는 없는 것 같았고, 그런 식으로 밖에는 내가 동성애자임을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알릴 방법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런 기분으로 2년을 보내다가, 지역의 성소수자 모임에 나가게 되었고, 그것을 계기로 용기를 얻어 청소년 성소수자 커뮤니티 'Rateen' 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미 청소년 동성애자들을 위한 커뮤니티는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커뮤니티에서 동성애자가 아닌 정체성을 가진 성소수자들은 발을 붙일 수는 없었고, 서로 간에 고민이나 정체성 확립에 대한 정보를 나눌만한 공간이나 기회도 접하기 몹시 힘들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다른 동성애자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것보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괜찮다”라고 서로에게 말해 줄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렇게 Rateen은 저 개인의 작은 고민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다행히도 같은 고민을 가진 친구들이 알음알음 모여들어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었고, 3년이 지나는 동안 가입회원 3,000여명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지금 Rateen에서는 고민상담소를 통해 자체적으로 라틴인의 친구들이 고민을 얘기하고 답변해 줄 수 있고, 네이버팀을 구성해 네이버 지식인 안에서 성정체성 고민을 들어주기도 하며 각자의 끼를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3년 동안 청소년 성소수자가 처음부터 직접 기획하고 준비하고 진행하는 정도와 이반놀이터라는 행사를 통해 우리 자신에 대해 알아가고, 서로 어울려가며 우리의 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첫 사랑을 경험했던 중학생에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세상은 청소년 성소수자에게 더 따뜻한 곳이 되었나요? 음, 글썄요, 잘 모르겠습니다. 신촌 공원의 10대 성소수자들은 점점 보이지 않고, 게이빈(종로 인사동에 위치하고 있는 커피빈을 게이들이 많이 찾는다고 하여 게이빈이라고 불리고 있다)도 없어졌습니다. 10대 성소수자들이 딱히 갈 데도 없는데 말입니다. 불과 몇 주 전 제 친구는 부모님께 이웃팅을 당해 집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중도 없는 많은 가출 이반들이 생계수단으로 선택하는 건 속칭 “알바”라고 하는 성매매입니다. 지역에서는 그나마 다른 성소수자 친구를 만날 수 있는 모임이나 공간도 수단도 거의

없습니다. 여전히 “호모새끼”는 남고에서 가장 치욕적인 욕이고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잠에서 깨우기 위해 게이에 관한 농담을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저 하나만큼은 더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저는, 더 이상 이제 내가 예쁜 여자를 좋아한다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아니, 확실히 잘 알 수는 없지만 Rateen의 많은 친구들이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 앞에서 당당해 질 수 있었다고 말해줬습니다. 누군가가 한 사람 만큼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기억납니다. 그런 표현에 따르자면, 단순히 몇 명에 불과하더라도 적어도 그 몇 명의 세계는, 좀 더 따뜻해졌습니다. 제 생각에 그 세계를 따뜻하게 만들었던 Rateen의 가장 큰 역할은 행사나 정모라기보다는 서로에게 “괜찮다”고 말해 주는 친구를 만날 기회를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넌 괜찮아.” 라는 말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저는 오랫동안 찾았습니다. 아마, 육우당에게도 좀 더 많은 사람이 그에게 그 말을 해 줄 수 있었더라면. 아직까지도 그의 세계가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Rateen뿐 아니라 다른 청소년 성소수자 커뮤니티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다양한 공간에서 각자 다른 방법으로 서로에게 괜찮다는 말을 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괜찮습니다.”

4 청소년 동성애자들에게 갖게 되는 불편한 물음들



‘혹시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세요?’

- 여자같이 행동하는 남학생, 남자 같은 여학생은 모두 동성애자일까?
- 청소년기 동성애는 우정과 사랑을 혼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인이 되면 없어지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 동성애를 다룬 매체(만화, 영화, TV드라마 등)를 자주 접하게 되면 동성애자가 될 확률이 높다?
- 어떻게 동성애자가 되었을까? 상담과 치료를 통해 이성애자가 될 수는 없을까?
- 동성애자들은 변태적이고 비정상적인 이상행동을 한다고 하는데 다른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까?



청소년기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시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적정체성을 고민하는 청소년들이 특별하거나 비정상적이지 않다는 인식 속에서 긍정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청소년을 둘러싼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모든 교과서에서 사랑과 결혼은 이성애자들만의 것, 에이즈의 원인이 동성애자라는 편견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청소년 동성애자들을 문제아, 비행청소년이라고 낙인찍고 있습니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동성애가 회화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성적인 모욕감, 혐오 범죄와 폭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때로 학교 밖으로 내몰리거나 극단적으로 자살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1978년 미국에서 벨과 에인버그라는 학자의 연구 조사에 의하면, 미국 청소년

년의 자살시도 중 게이 남성이 이성애자 남성보다 17세 그룹에서는 16배, 20세 그룹에서는 13배나 높게 조사되었습니다. 한국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008년 한국에서 일어난 한 청소년 동성애자의 자살은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커밍아웃하는 청소년보다 자살을 선택하는 청소년들이 더 많습니다.

2004년 4월, 청소년보호법에서 동성애를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규정한 심의기준이 삭제되었습니다. 동성애가 더 이상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동성애 관련 매체를 청소년들이 접하면 바로 동성애에 물들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이 사회에 팽배해 있습니다. 언론도 공공연하게 청소년들이 동성애 관련 매체를 접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동성애가 한 인간을 구성하는 정체성 중 하나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성정체성은 청소년 시기에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동성애를 무조건 나쁜 것으로, 한 때 지나가는 감기 같은 것으로 치부하는 교육과 이 사회의 분위기가 청소년들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수많은 청소년들이 자신이 가지는 감정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로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는 현실이 더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동성애자들 또한 청소년 시기에 사랑의 감정을 경험하고 성정체성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동성애를 터부시하는 사회 속에서도 동성애자는 존재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동성애는 청소년 시기 잠시 지나가는 열병이 아니라, 한 인간을 구성하는 정체성의 일부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성정체성을 고민하는 청소년들에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왜 이성애 원인을 찾는 연구는 없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자가 되는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성애가 비정상’이라는 전제 아래 과거부터 끊임없는 연구들이 있어왔고 여러 원인론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먼저 생물학적 원인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쌍둥이 연구를 통해 유전적 요인을 밝혀보려 했지만 표본집단이 넓어질수록 이렇다 할 연관성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호르몬의 구성에서도 동성애자들은 이성애자들과 전혀 차이가 없었습니다. 게이에게 남성호르몬을 주사해도 전혀 성행동의 유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뇌구조를 연구한 경우도 있었지만 동성애자들에서 큰 차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생물학적 원인론은 동성애 성정체성이 고유의 것으로 인위적으로 바꿀 수 없다는 주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지만, 대상이 한정된 연구였기 때문에 설득력을 갖기엔 매우 부족합니다.

그 외에 정신분석학적으로 동성애의 원인을 밝히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의 경우 일단 동성애가 정신질환보다는 인간의 성적 발달과정에서 어떤 정신적 외상으로 성적 기능이 변한 것이라 점을 강조합니다. 프로이트는 인간은 원래 양성적 존재로 태어나는데, 동성애자들은 자라는 도중 부모와의 갈등과 가족의 상호작용이 잘못되어 동성애적 성향에 고착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동성애를 이성애보다 미숙한 형태의 성적 행위로 인지하며, 동성애의 원인을 가족관계에 두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가족관계에서 어떤 형제들은 이성애자로, 또 다른 이는 동성애자로 자라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동성애적 행위, 즉 동성과의 만족스러웠던 경험이나 이성과의 불만족스러웠던 경험, 이 동성애를 ‘선택’하게 된 원인으로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어릴 때의 의식

적, 무의식적 성경험이나 기숙사, 교도소, 군대 등에서의 일시적인 동성애적 경험이 동성애적 행동을 강화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기충격, 혐오연상 등의 치료법도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치료법이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다하더라도 이성애로 전환했다는 구체적인 사례는 없으며, 특수 환경에서 이루어진 동성애적 행위는 그 조건이 해제되면 원래의 성적지향으로 되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동성애자들보다 이성애자들이 사춘기 때 동료들과 동성애적 행위를 한 경우가 더 많다는 연구결과는 동성애가 단지 학습되는 것이 아님을 증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자가 되는 이유를 밝혀내고자 했고 이 연구는 여전히 진행중입니다. 이러한 연구는 잘못된 편견을 만들어내고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편견이 사실처럼 가장되어 동성애자 차별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동성애자들은 때로 폭력적인 방법으로 입상실험의 희생양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진행된 연구에서 동성애의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연구 그 자체가 인간의 존엄을 말살시키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동성애 원인론은 근본적으로 동성애적 정체성을 비정상적, 병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그릇된 시각을 바탕으로 하며, 동성애 정체성을 고쳐서 '정상적인' 이성애 정체성을 되찾아야 한다는 잘못된 결론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합니다. 왜 사람들은 이성애의 원인은 찾지 않으면서 동성애의 원인만 찾으려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5 상담사례를 통해 본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현실 만약 당신이라면?



사례 1 어느 날 짝꿍이 칼머리한 친구들과 어울리고 동성애에 관한 만화책을 본다면 짝을 바꾸달라고 한다. 변태, 호모랑 같이 계속있게 되면 에이즈에 걸리는 것이 아니냐고 묻는다. 만약 당신이라면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사례 2 친한 동료교사가 담당학생이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또래 동성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감시하고 반성문을 쓰게 하거나 가족에게 알렸다고 한다. 만약 당신이라면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사례 3 가족에게 자신의 성정체성이 알려져 힘들어하는 학생이 있다. 신앙심이 충만한 기독교 집안이고 가부장적인 아버지가 계신다. 집에 들어가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한다. 학교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갈 시간 만약 당신이라면 학생에게 어떤 말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사례 4 또래 친구들에게 여자 같다또는 게이같다는 이유로 성적모욕과 괴롭힘을 당하는 남학생이 있다. 호모라고 놀림을 당하며 울고 있는 친구를 봤다. 만약 당신이라면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사례 5 동성친구와의 가버문 성 접촉! 자신의 성정체성을 고만하기 시작한 학생 한 명이 조용히 상담하러 왔다. 만약 당신이라면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생각하는 학생에게 어떤 말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사례 6 성교육 시간이다. 다양한 영상을 활용하며 남녀의 몸을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 장면, 남자들이 성행위하는 자세를 학생들과 보여 에이즈에 대해 설명한다. 학생들이 손가락질하기 시작했다. 호모들이 걸리는 에이즈라며 비웃는다. 만약 당신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진행한다면 성정체성과 에이즈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매우 어렵지요? 여기서 언급된 사례들은 교직생활을 하는 당신이 경험할 수도 있고 경험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각 상황마다 대처하는 방법 또한 다르기 때문에 100% 정답은 없습니다. 단 반드시 사용해야 할 표현과 그렇지 않은 표현들이 있죠. 심부름계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일들도 있고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어야 설명해 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례의 대답을 통해 성소수자와 관련된 정보를 어느정도 알고있는지, 편견으로부터 어느정도 자유로운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동성애자에게도 청소년 시기는 매우 중요한 때입니다.

동성에 정체성은 자신이 말하지 않는 이상 밖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점은 청소년 동성애자들을 한층 더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청소년 시기는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도덕성에 민감해지는 시기입니다. 친구들과의 친밀한 관계가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시기에 누구에게도 감히 이야기할 수 없는 고민이 있다면 쉽게 정서적으로 불안해지고 자신이 속한 곳에서 이탈하려고도 하죠. 때로는 깊은 우울증과 자살 같은 극단적인 결과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소년 동성애자들이 긍정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하고 확립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청소년들에게 열린 자세로 대해야 함을 뜻합니다.

우선 청소년 동성애자들이 직면한 문제들에 대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1. 성장체성으로 인한 소외감과 죄책감



많은 청소년 동성애자들은 이성애만 옳다고 이야기하는 세상에서 쉽게 소외감을 느낍니다. 다군다나 에이즈 전파의 주범에, 가족을 붕괴시키고 어딘가 변태적인 취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동성애자라는 사회적 편견 속에서 죄책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나 혼자 뚝 떨어진 기분이 들죠.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 찾아낸 동성애자 커뮤니티 등에 소속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청소년 동성애자들의 현실은 커뮤니티 모임에 참가하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된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는 언제나 이성애 중심으로 교육하고 친구들은 여전히 동성애를 나쁜 것이라 생각합니다. 때로는 선생님들이 앞장서서 이러한 편견을 조장

하기도 하죠. 이런 소외와 죄책감은 청소년 동성애자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2. 가족간의 불화



가족은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공간 중 하나입니다. 만약 가족이 청소년 동성애자의 커밍아웃을 잘 받아들인다면 무엇보다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커밍아웃을 하거나 아웃팅을 당했을 때, 부모들은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아단치거나 친구와의 연락을 할 수 없게 핸드폰을 뺏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는 집에 감금시키거나 정신병원에 데려가기도 합니다. 집에서 쫓아내는 경우도 더러 있는데 이 경우 청소년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부모의 거부는 자녀에게 많은 상처를 안겨주게 됩니다.

3. 학교에서 일어나는 동성애 혐오에 기반한 폭력



요즘 적잖은 학교가 소위 '동성애 검열'을 합니다. '동성애=비행청소년'이라는 일토당토않은 공식에 기대어 문제 학생들을 잡아내고 처벌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는 청소년 동성애자에 대한 학교의 폭력입니다. 학교 친구들이 동성애자 학생을 의심하고 왕따를 시키거나 소문을 퍼뜨리기도 합니다. 교사들이 동성애자로 의심되는 학생을 불러다 집에 아웃팅시키거나 성적 모멸감을 주기도 합니다. 이에 학칙으로 동성애 행위를 처벌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 동성애자를 학교 밖으로 내모는 행위입니다.

4. 우울증과 자살같은 극단적인행동



청소년 동성애자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지게 되며 불안감과 우울, 소외감을 쉽게 느낍니다. 때문에 우울증을 가지게 되거나 극단적인 경우 자살시도도 하게 됩니다. 청소년 동성애자의 자살 위험성은 많은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는 청소년 동성애자의 자살시도가 2배~3배 정도 높고 전체 청소년 자살율의 30%를 차지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 이후 많은 연구들은 청소년 동성애자들의 48%에서 76%가 자살에 대해 생각하며 29%에서 42% 정도가 실제로 자살을 시도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청소년 동성애자들의 자살 문제를 연구한 보고서도 위와 비슷한 결과를 도출해냈습니다.

5. 가출의 위험성



가출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쉽게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합니다. 청소년들은 사회에서 적절한 일자리를 얻을 수 없고 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만한 공간도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가출은 단지 위의 문제 외에도 학교생활의 어려움, 가족 간의 불화와 같은 고통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점에서 여러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개인이 도저히 생활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다른 대안을 찾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전제될 것은 청소년이 가족에 의존하지 않고도 적절한 상담과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갖추어지는 것이겠죠.

6. 청소년 동성애자 커뮤니티 안의 문제



때로는 청소년 동성애자 커뮤니티에서 조차 폭력 등의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럴 때에는 모든 문제가 동성애자 집단이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편견을 버리고 다가가야 합니다. 폐쇄적인 커뮤니티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일들을 이들이 처한 조건에 기반하여 이해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잘못되거나 위험한 상황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열린 상담을 위한 10가지 태도 이렇게 상담하세요!



1. 내 고민을 이야기해도 괜찮다는 신뢰감을 쌓아가는 것이 우선입니다.



학교에서 학생이 자발적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보통은 문제가 밖으로 드러난 후 마주 앉게 되는 경우가 많지요. 이렇듯 학생이 스스로 교사에 게 성적체성에 관련한 문제를 상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교사가 먼저 동성애 문제에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편안하게 상담하기 쉬운 분위기를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실제로 동성애자인권연대에 담당 학생 문제로 상담을 요청한 한 중학교 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교사는 스스로 동성애에 대해 편견이 없고 학생의 입장에서 어려움을 이해하며 돕고자 했으나, 이미 집과 학교에 성적체성이 알려진 상황에서 학생을 접촉하는 것조차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과 학교 바깥에서 여러 번 만나면서 교사와 학생이라는 벽을 허물고 가깝게 다가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교사 스스로 편견 없이 학생을 대하고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이 성적체성 문제로 인해 학교와 집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는 선생님이 보호자가 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이는 선생님 또한 사회적 편견에 대응하여야 하는 것으로 쉽지 않으나 꼭 필요한 일입니다.

2. ‘문제학생 지도’로 접근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동성에 문제는 종종 비행청소년의 일탈행위나 성 문제 등으로 불거져 나타나게 됩니다. 이는 동성에 자체가 이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보다는, 이사회가 청소년에게 금기시 하는 행동을 낙인찍고자 생겨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많은 교사들이 잘 보이지 않는 문제인 성정체성보다는 학생이 저지른 소위 일탈행위에만 주목해서 다그치거나 처벌하는 등의 학생지도를 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벌어지는 말과 행동들이 동성애자 학생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많지요. 교사 개인의 신념을 마치 절대적인 것으로 느끼게 해서는 안 되며, 성정체성 고민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교사와 청소년이 동등한 입장에서 고민을 나누도록 합니다.



학교에서는 흔히 교사가 위에, 학생이 아래에 있는 권력관계가 나타납니다. 학생에게 가해지는 체벌이나 욕설 등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도 이 때문이죠. 상담에서도 자칫하면 선생님이 청소년 동성애자에게 훈계를 하는 것으로 느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교사와 학생은 다른 위치에 있으며, 세대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사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데 학생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차이도 흔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교사는 최대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추어 문제를 바라보고 이러한 차이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선생님은 모든 문제를 알고 있다는 식의 상담은 별로 좋

지 않습니다. 학생의 이야기를 모두 중요한 이야기로 여기고 공감해주는 것이 눈높이를 맞추는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이겠죠.

4. 청소년기의 성적체성을 ‘교정’ 하지 말고 함께 ‘탐색’ 하세요.



많은 교사들이 겪는 오류 중 하나가 청소년 시기 성적체성에 대한 고민은 한 때의 흥역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사들의 이런 접근은 학생의 동성애 정체성을 친절하게 ‘교정’ 해 주려는 시도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동성애는 한 개인의 특성이지 교정되거나 고쳐지는 병이 아닙니다. 만약 그럴 수 있었다면 대부분의 동성애자들은 이성애자로 자신을 교정하려 했겠지요. 이제는 청소년의 성적체성을 함께 탐색하고 모색해 보세요. 세상에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제자는 앞으로 동성애자로 살아가게 될 수도 있고, 혹은 이성애자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으며, 양성애자 혹은 트랜스젠더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정체성은 차이일 뿐 옳고 그르다는 판단을 개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청소년의 성적체성을 자기 자신의 결정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성교육에서 강조하는 ‘성적 자기결정권’ 에도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열린 자세는 청소년이 빨리 성적체성을 결정되고 싶어 하거나 혹은 강박적으로 이러한 고민을 벗어나려고만 할 때 모두 도움이 됩니다.

5. 상담은 현실적으로, 청소년의 욕구에 맞추어 진행하세요.



당장 집을 나온 한고등학생이 계속 학교에 다닐지 말지를 고민합니다. 집에는 가기 싫는데 생활비를 당장 해결할 수도 없는 사면초가의 상황입니다. 이렇듯 상담하는

개인들은 구체적인 상황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은 상담에서 자신이 처한 구체적인 어려움에 대해 현실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때 계속적으로 상담에 임할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뜬구름 잡는다고 느낄만한 이야기보다는 쉽사리 결정하기 힘든 여러 상황들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더 현명할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출발한다면 상담에서 더 많은 성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선생님이 도와주거나 방향을 지시하는 방식이기보다는 학생 스스로 상황을 인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어야 합니다. 행동에 따라 예상되는 다양한 결과들을 함께 이야기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요.

6. 주변과 소속집단의 영향력과 친밀함, 도움줄 수 있는 사람과 기관을 살핍니다.



청소년 동성애자의 경우 청소년 동성애자 커뮤니티에 큰 친밀함을 느낍니다. 그 안의 독자적인 룰과 역할 등을 따르기도 하지요, 그것이 당장 선생님 눈에 좋아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숙단하고 그곳에 나가지 않도록 권유하는 일은 옳지 않습니다. 친밀감을 느끼는 것은 그곳이 청소년 동성애자에게 매우 중요한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그가 느낄 여러 가지 감정과 상황을 잘 듣고 이해해 보십시오. 때로 안 좋은 일에 휘말릴 때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성희롱이나 폭력 같은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죠. 그럴 때는 굳이 동성애와 연결시키지 말고 일반적인 문제로 보고 해결하려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때로는 친밀함을 느끼는 집단의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조언을 들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혹은 동성애자 인권단체나 청소년 단체 등 교사와 학생에게 도움을 주고 지원할 수 있는 기관과 단체를 알아두었다가 연락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7. 상담장소가 꼭 학교 상담실일 필요는 없습니다.



학교 상담실은 웬지 모르게 거리감이 있어 보이고 때로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합니다. 청소년에게 학교가 불편한 공간이라면 좀 더 편하게 이야기할만한 곳으로 장소를 정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학교를 벗어나면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라 좀 더 편한 관계로 변화를 겪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학생을 만나기 위해 그들이 잘가는 신촌의 한 커피숍으로 간 적도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친숙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은 소소하지만 꼭 빠트릴 수 없는 중요한 이야기들을 늘어놓을 수 있게 만드니까요. 때로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진행하는 활동(일일чат집 등)에 관심을 가지거나 청소년 동성애자들끼리 쓰는 은어들을 배워가며(?) 이들의 문화를 느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8. 청소년 동성애자들의 성적관심과 섹스를 존중합니다.



청소년이라고 성관계를 가지지 못하란 법은 없습니다. 이미 우리 사회도 성교육에서 안전한 성관계를 가르치기 시작했으며, 청소년의 성적자기결정권이 존중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성적 호기심을 가지고 성적인 행위와 관계를 갖는 것은 무조건 막을 일이 아니라, 안전하고 즐겁게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오히려 요구된다 할 수 있습니다. 동성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들은 동성간의 섹스와 스킨십이 혐오스럽다는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동성애도 이성애와 마찬가지로 사랑의 한 형태이며 기쁨의 행위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관계를 가져야함을 강조해 주십시오. 청소년 동성애자에게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성관계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무엇인지 설명해 준다면 청

소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9. 동성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숨어서 동성애에 대한 정보를 찾곤 하죠. 그러다보면 동성 포르노와 같은 것을 마치 동성애의 전부로 받아들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보는 데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죠. 선생님이 먼저 추천해 줄만한 인터넷 사이트, 관련 서적 및 영화, 인권단체 등을 소개해 준다면 훌륭한 길라잡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0. 커밍아웃과 아웃팅의 중요성을 잘 알고, 학생의 지지자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않지만 어떤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학교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커밍아웃을 하고자 합니다. 이럴 때에는 부모로부터 올 압력과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충분히 예상하고 준비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충동적으로 커밍아웃 하는 것은 동성애자에게 인에게 고통으로 돌아오기 때문이죠. 이럴 때 선생님은 학생의 지지자가 되어서 커밍아웃을 하든 하지 않든 그 중요성을 함께 공감하고 부모를 설득시키거나 학교로부터 보호하는 역할도 맡아야 합니다. 한편 원치 않게 정체성이 밝혀지는 아웃팅은 학교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럴 때에도 선생님은 이 문제를 건성으로 넘기지 말고 관련 학생을 보호하고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7 모두를 위한 교육을 위해 펼칠 수 있는 10가지 행동



1. 모두 이성애자라고 단정짓지 마세요!



모든 학생들이 '이성애자'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생각은 교실 안에 한 명이라도 존재할 수도 있는 성소수자 학생들에게 당신은 자신의 이야기를 절대로 들어주지 않을 사람 또한 인권에 둔감한 사람이라고 판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교사, 교육 전문가들은 성소수자 학생들을 위한 언어나 태도를 고민해야 합니다. 만약 모든 학생들이 '이성애자' 일 것이라 생각하고 교육하게 된다면, 당신 수업에 있을 수 있는 성소수자 학생들은 교실에서 당신으로부터 상처를 받을 것이고, 또래집단에서 소외될 것이며, 스스로를 별종이라고 생각하고 고립될 것입니다.

2. 모두가 평등한 교실과 학교 만들기 위해 노력해요!



학교에서 성소수자 학생들은 수업하는 교실이 차별에 보호 받을 수 있는지, 평등의 가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학교와 교실에서는 성적체성의 차이를 이유로 혹은 성적지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성소수자 학생을 따돌리거나 괴롭히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정책들을 마련해야 합니다. 작게는 교실에서부터 성적체성의 이유로,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차별이 이뤄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성적체성, 성적지향, 말투, 표현, 표정 등을 문화적 다양성으로 이해하고, 차이가 차별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닌 학생 서로가 평등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교육을 먼저 펼쳐야 합니다.

3. 안전한 학교와 교실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요!



학교, 교실 안에서 성소수자 청소년들이 괴롭힘, 두려움 없이 친구들과 어울리며 학교 수업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는 사전작업을 갖추는 것은 학교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학교는 육체적 폭력은 물론 따돌림, 호모새끼, 계집애 같은 녀석, 선머슴, 변태 등 모욕적 언어를 없애는데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인권감수성교육, 인권포스터전시, 인권스터키부착과 같은 캠페인처럼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4. 다양하고 다채로운 서적과 영상매체를 보유해요!



도서관에서 학생들은 성적체성, 성적지향 등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자신의 성적체성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소수자 관련 서적은 너무 빈약하기만 합니다. 또한 영상매체는 성소수자를 왜곡하고 있고, 영화는 성소수자들의 삶과 고민을 담기에는 아직 부족합니다. 도서관 사서(교사)들과 영상매체 관련 전문가들은 학생들이 성소수자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있게 배려해야 합니다. 서적과 영상매체로 부족하다면, 동성애, 동성애자 정보를 바로 알 수 있는 인터넷 검색을 함께 해보며, 교육할 수 있습니다. 동성애자인권연대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여러 성소수자 관련 단체 사이트를 방문해 보며 그들의 삶을 엿보는 것도 좋은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5. 교육자, 교원, 교직원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학교는 성소수자 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에게 평등과 인권이 보장되는 학교 공간을 만들기 위해 교육자를 비롯한 교직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성정체성, 성적지향 이해 프로그램, 성정체성 발달과정 이해 프로그램, 성소수자 학생 상담 프로그램 등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들 프로그램을 당장 학교에서 실시하기 힘들다면 동성애자인권연대 활동가들이 학교를 방문해 관련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전문적으로 교육을 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6. Health Care와 교육을 준비해요!



성소수자 학생들에게 '건강문제'는 단지 '성정체성'과 '성적지향', '성행위로 감염되는 질병'에 관계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학교전문 상담자들과 양호교사 등 학생들의 건강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들은 '성소수자문제'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학교 안에서 괴롭힘과 따돌림에 직접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성소수자 청소년들을 위한 정신건강 프로그램, 임신이나 성병에 관련된 성교육이 아닌 다양한 성정체성에 대한내용이 담긴 성교육을 준비해야 합니다.

7. 교육자 스스로 모델이 되어야 해요!



행동은 한마디 말보다 큰 효과가 있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인간성에 기초해 상황을 판단하고 어떤 종류의 차별에도 반대하는 것입니다. 교사는 학교 공간 안에서 학생들에게 성적지향, 성적체성에 의한 괴롭힘, 따돌림을 당하는 성소수자 학생들을 보호하는 모습에서, 차이를 존중하는 학교 수업을 통해서 스스로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말을 사용하고, 괴롭힘, 따돌림, 혐오범죄를 학생들 사이에서 조정하고 또한 성소수자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들과 인권감수성프로그램들을 실시한다면 스스로 모델이 된 교사를 통해 성소수자들을 존중할 수 있는 인권감수성은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8. 성소수자 학생들을 지원해야 해요



성소수자 학생들의 인권을 지지해 줄 수 있는 또래 친구가 있는지 없는지, 교육자로서 성소수자 학생들을 편견없이 받아들이л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가 성소수자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되기도 하고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동성애자인권 연대는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싶어 하는 학생들, 다양한 성적체성, 성적지향에 대해 궁금해 하는 학생들을 찾아가 직접 교육을 하고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 공간 안에서 괴롭힘,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성소수자 학생을 돕고, 정보를 제공하며 평등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를 적극 활용해보십시오.

9. 교육과정(커리큘럼)을 재평가해야 해요



교사들은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성소수자 인권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교육시간 뿐만 아니라, 모든 학과 교육에서도 성소수자와 관련 이슈를 의

식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현재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성소수자 관련 이슈와 역사를 교육과정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특히 영화, 영상매체를 활용하는 교육, 책읽기와 사회이슈에 대한 토론 등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함께 토론하고 교육한다면,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모든 학생들(성소수자 청소년들도 포함)은 배움속에서 사라지는 편견을 느낄 수 있을 것이며, 교육자들은 가르침의 중요성과 성취의 가치를 느낄 것입니다. 성소수자들을 특별하게만 바라본다면 교실 안과 밖에서 늘 세상의 가장자리에 놓인 사람들로만 인식될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교육과정 속에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10. 다양한 학교내 과외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요



보통 과외 프로그램들은 학생들 그룹, 교실내 분위기에 맞춰 배치됩니다. 하지만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성소수자 학생들을 위한 과외 프로그램은 '다양성이 존중되고, 우리 세계의 차이를 반영하는' 프로그램으로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권감수성 프로그램, 성정체성, 성적 지향에 대한 이해를 위한 강연 프로그램, 모의 상담 프로그램 등을 광범위하게 학교 내 과외 프로그램 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부록

나도 혹시 호모 포비아?

호모포비아(Homophobia, 동성애공포증)는 동성애에 대해 무조건적인 거부감을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논리적인 배경 없이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으로 동성애에 대한 정확한 정보나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잘못된 편견에 의해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단순히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동성애 혐오증이 깊어지면 혐오에 기반한 범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당신도 혹시 호모포비아인가요? 아래 체크리스트를 확인해보세요. 하나라도 표시를 하셨다면 그 이유가 과연 타당한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 나는 동성애자 직장 동료와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 ☐ 옆집에 사는 사람이 동성애자라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 ☐ 나는 동성애자로부터 프러포즈를 받을 경우 기분이 매우 나쁠 것이다.
- ☐ 만약 길거리에서 동성 간의 애정표현을 본다면 매우 불쾌할 것이다.
- ☐ 내 아이가 동성애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 내 가족 중 한명이 커밍아웃을 한다면 가족으로의 인연을 끊을 것이다.
- ☐ 나는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 ☐ 내 아이의 교사가 동성애자라면 즉각 학교에 항의할 것이다.
- ☐ 학교 성교육에서 동성애에 관한 내용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 동성애자들의 인권문제를 언론에서 접하면 불안한 마음이 생긴다.
- ☐ 나는 동성애자들의 모임이나 행사가 붙은 선전물을 보면 이유 없이 기분이 나쁘고 제거하고 싶다.

부록

내가 사랑하는 친구와 가족이 어느 날 나에게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 한다!

이럴 때 어떻게 하지?!

동성애자가 자신의 정체체성(Sexual identity)을 주위의 친구나 가족들에게 알리는 것을 흔히 '커밍아웃'이라고 합니다. 더 정확한 의미로는 coming out of the closet의 줄임말로 '벽장으로부터 나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오랫동안 자신의 정체체성을 숨기고 있다 자신의 정체체성을 긍정하고 타인에게 '내게 이런 면이 있어...' 하며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대개 자신과 가깝게 지내던 친구나 가족이 커밍아웃하게 되면, 그 친구나 가족이 얼마나 큰 용기를 가지고 커밍아웃을 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보다는 황당해 하거나 자신도 동성애자가 되는 것은 아닌지, 앞으로 자기 자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더욱 초점을 두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러 이유에서 동성애자 친구를 갖는다는 것은 자신에게 부담이 되기보다 오히려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주위의 가까운 사람이 커밍아웃을 할 경우 당황하지 않고, 커밍아웃을 한 당사자가 상처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몇 가지 태도를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축하한다' 라는 말을 해줍니다!

자신의 정체체성을 긍정하고 타인에게 커밍아웃하는 행위 그 자체는 나름대로 자기 자신 속에 사랑의 가능성을 발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굳이 이성애자가 되기 싫다던가, 동성애자가 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어떤 사람에게 사랑의 감정이나 성적 매력을 느꼈는데, 그 대상이 단지 같은 동성이라는 사실만 이해하면 될

니다. 물론 동성애자로 이 사회를 산다는 것이 비정상이나 변태 등의 다양한 수식어가 붙는 것이 현실이고, 당신 또한 동의한 부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배제하고 정체체성을 찾는 힘든 과정을 극복하고 스스로를 긍정했다는 점을 우선 축하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 당신을 신뢰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고맙다는 말을 하시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듯 동성애자들도 주위의 가까운 사람들과 자신의 내면의 생각이나 느낌을 같이 나누고 싶어 합니다. 특히 친구, 가까운 가족구성원들에게는 더 그런 감정이 들기 마련입니다. 동성애자들은 자신의 정체체성을 말함으로써 오게 되는 위험들을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에게 커밍아웃을 하기 전 오랜 시간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숨길 수 도 있는데 꼭 해야 하나 등등.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당신에게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만큼 당신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우정과 신뢰에 고맙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커밍아웃한분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주는 것이 좋습니다.

{ 사랑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현재 사랑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물어 보신다거나, 현재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면 최근 상황에 대해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피상적인 관심에서가 아니라 커밍아웃을 하는 사람 전체를 받아들이는다는 의미에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물어 보는 것은 서먹한분위기를 관계를 좋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동성간 성 경험에 대해 물어본다면 상대는 오히려 거리를 두려할 것입니다.

최대한 듣도록 노력하세요!

커밍아웃은 동성애자들에게 긴 여정과도 같습니다. 자신의 성정체성을 숨긴 채 끊임 없이 자신을 부인하는 과정, 다른 동성애자들과 처음으로 만나는 과정 모두 커밍아웃의 단계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 만큼 그동안 동성애자로 힘들게 살았던 과정들과 커밍아웃을 통해 얻게 된 변화들에 대해 다시 함께 이야기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기도 합니다. 최대한 상대가 자신의 삶을 이야기 하는데 있는 그대로 들어주세요.

여전과 다름없이 서로 계속연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커밍아웃을 하게 되면 마치 무슨 큰 죄라도 고백한 양, 상대의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에 무척 불안해지기도 하며, 연락을 잘 인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락을 평소처럼 잘 인하게 되면 혹시 우리 둘 사이의 관계가 멀어진 건 아닐까 하는 조바심에 상대의 반응에 예민해지기 쉽습니다. 커밍아웃은 사랑고백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까지의 인간관계에 대한 '재신임' 같은 면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사랑해 달라는 뜻이 아닌 서로의 전인격에 대해 가림 없이 지내고 싶다는 인간관계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혹시 연락이 없다면 먼저 연락을 해보세요! 상대의 밝은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회에서 동성애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상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편견이 없는 사회라면 동성애자라는 말 자체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 오랜 세월 애써

가짜은 우정을 위태롭게 하거나 가족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동성애자인권연대에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힘든 생활을 하고 때로 눈물이 핑 돌 정도의 사연을 가진 사람들의 상담이 자주 옵니다. 그만큼 커밍아웃이 갖는 본래 긍정적인 의미와 달리 친구와 가족으로부터 되돌아오는 상처 되는 말과 행동으로 인해 오히려 커밍아웃한 당사자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웬칠야 하며 너에게 큰 힘이 되어 줄게 라고 말한다면, 그것만큼 상대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또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음을 표현하도록 해보세요! 다양한 질문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그동안 힘든 경험은 없었는지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내가 무의식적으로 동성애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말한 적은 없는지’ 와 같은 질문으로 대화를 계속한다면 상대에게 큰 힘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 ‘날 사랑하는 것은 아닌가?’ 와 같은 의심이나 ‘날 사랑한 적은 있어?’ 와 같은 질문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남자들의 경우 다른 남자가 자신을 좋아한다면, 자기를 여성으로 대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단지 자신의 남성성이 도전받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불안감에서 기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 그런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대개 남성 동성애자가 같은 동성에게 성적 매력을 느낀다는 것은 상대를 여성으로 생각해서가 아닙니다. 이성간에도 여자가기 때문에, 혹은 남자가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맛있는 점, 매력 포인트 등이 큰 영향을 미치듯이 동성애자들도 마찬가지이니까요!

반드시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

커밍아웃은 자기 자신의 일생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커밍아웃을 해서 상대가 받아 주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일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에게는 커밍아웃이 가능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 동성애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의 벽이 높기에 친구, 가족의 커밍아웃을 받아들일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당사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로 자신의 선에서 비밀을 지켜 주어야 합니다. 당신에 대한 전인격적인 신뢰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르는 것이 있다면 숨기는 것보다 솔직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동성애자들의 삶을 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내가 잘 알고 있지 못하는 내용이 혹시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궁금한 것들이 있어도 물어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를 이해하고 예전과 같은 좋은 인간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약간의 실례가 되는 질문이라 하더라도 솔직히 질문하고 모르는 것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는 반가워하며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모두 알려주려 할 것입니다.

유머감각과 친근한 표현은 상대를 편하게 해 줄 수 있습니다.

커밍아웃을 하는 중요한 순간에 갖는 유머감각은 동성애자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지나친 유머가 자칫 대화 분위기를 가볍게 만들

수있게 하거나 상대로 하여금 내 얘기를 농담쯤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을 갖게 할 수 있으니 약간의 긴장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하더라도 혹시나 하는 우려감에 친근한 표현을 주저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태까지 관계 맺어왔던 태도 그대로 친근감과 유머감각을 보여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부록

상담이 필요하거나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을 얻고 싶다면

동성애자인권연대 www.lgbtpride.or.kr

070-7592-9984 / lgbtpride@empal.com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www.chingusai.net

02-745-7942 / chingu@chingusai.net

한국레즈비언상담소 www.lsangdam.org

02-703-3542 / lsangdam@lsangdam.org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www.kscrc.org

0505-896-8080 / kscrcmember@naver.com

청소년 성소수자들에게 추천해 주거나 함께 읽어보면 좋을 책

Is It a Choice? - 동성애에 관한 300가지 질문 에릭마커스 지음, 캄투게더 옮김, 박영물 출판사, 2000

못 생긴 트랜스젠더 김비 이야기 김비 지음, 오상, 2001

동성애의 심리학 윤가현 지음, 학지사, 1997

엠 아이 블루? 메리언 데인 배우어 외 12인, 조응주 옮김, 낭기열라, 2005

성서가 말하는 동성애 신이 허락하고 인간이 금지한 사랑 다니엘 헬미니악 지음, 김강일 옮김, 도서출판 해울, 2003

고정관념Q - 동성애 공자그드 라로크 지음, 정재곤 옮김, 웅진지식하우스, 2007

성적 다양성, 투쟁거나, 혹은 모르거나 바네사 베어드, 김고연주 역, 이후, 2007

다큐멘터리 북 3×FTM 세 성전환 남성의 이야기 김성희, 조혜영, 루인 공편, 그린비 2008

단체발간 자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 부모들이 알고 싶어 하는 37가지 질문 2007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청소년 동성애자 인권을 위한 교사 지침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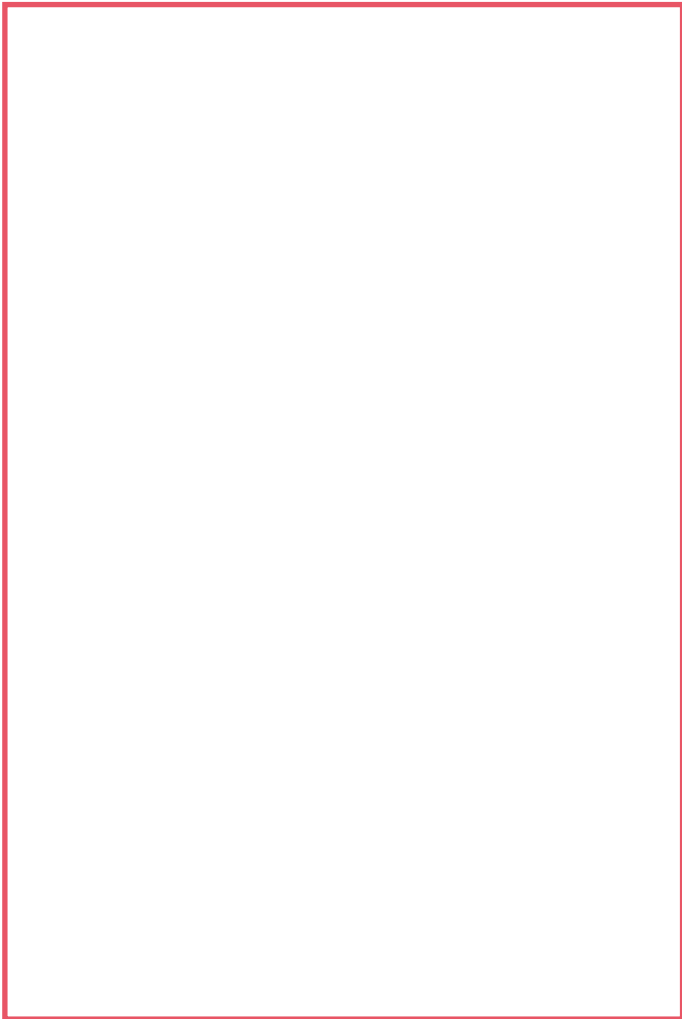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2006 동성애자 가족 구성권 자료집 2006

동성애자인권연대 청소년 성소수자 상담 기초교육 자료집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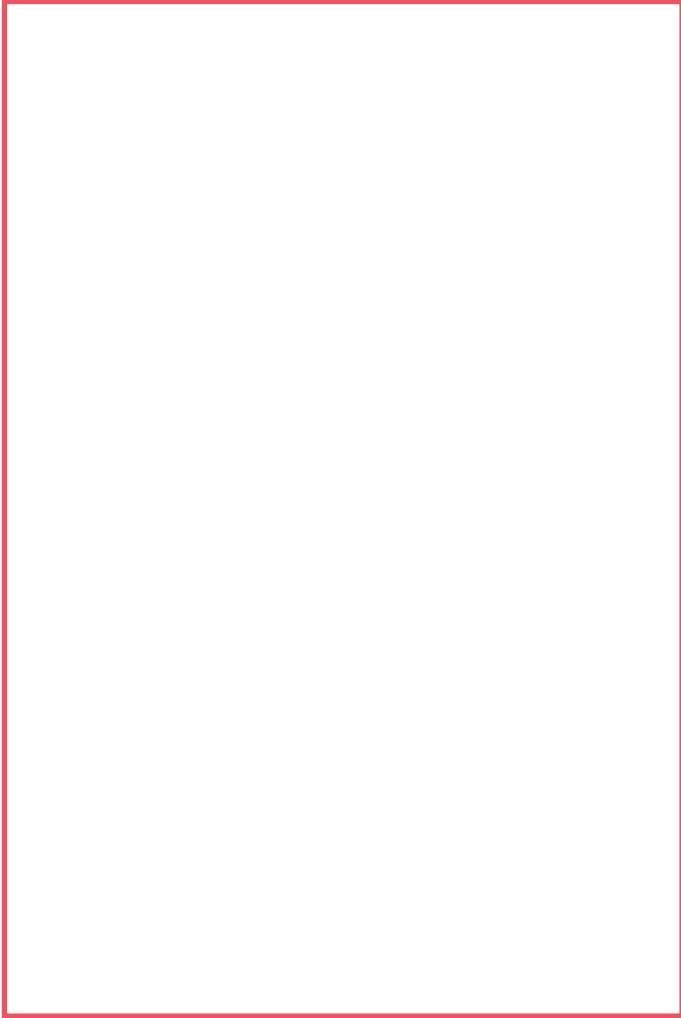
※ 관련발간자료에 대한문은 해당단체에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성소수자 인권자침서

교사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인권이야기



동성애자인권연대



성소수자 인권자침서 교사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인권이야기

발행일: 2010년 8월 31일 | 펴낸곳: 동성애자인권연대
<http://www.lgbtpride.or.kr> E-mail: lgbtpride@empal.com
Tel: 070-7592-9984 Fax: 0505-955-9984

동성애자인권연대 웹진 '너, 나, 우리 "탕"'
lgbtpride.tistory.com
twitter _ @lgbtaction
facebook _ facebook.com/lgbtaction
웹진 '탕' <http://lgbtpride.tistory.com>
트윗(twitter) 친구하기~!! <http://www.twitter.com/lgbtaction>
페이스북(facebook) 친구하기~!! <http://www.facebook.com/lgbtaction>

후원: 아름다운재단 이 자원은 아름다운재단 2010년 '게미스폰서 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성소수자 인권지침서 첫 번째
교사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인권이야기

이 자료는 아름다운재단 2010년 '개미스폰서 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동성애자인권연대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TEL 070-7592-9984 FAX 0505-955-9984

후원계좌: 국민은행 042601-04-000151 예금주: 정율(동인련)

www.lgbtpride.or.kr

동성애자인권연대 웹진 '너, 나, 우리 "랑"'

lgbtpride.tistory.com

twitter _ @lgbtaction

facebook _ [facebook.com/lgbtaction](https://www.facebook.com/lgbtaction)